

# 공불련 업그레이드 전략 '눈길끄네'



공불련이 공무원 불자들의 실행여건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단체를 만들고 키우는데 주력했다면 올 공불련의 화두는 '조직화', '내실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광주 감사에서 열린 공불련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봉행 모습. 현대불교지로서진

공무원 불심이 꿈틀거린다. 국내 최대 직장인 실행단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운갑, 이하 공불련)가 지난 12월 28일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2006년 한 해 살림살이 밀그림을 알차게 그렸다.

활동비전도 선포했다. '참여하는 공불련, 하나 되는 공불련'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4대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기획 단도 꾸려 내실있는 실행 환경 조성, 인드러망 구축을 통한 조직 구성, 법회 및 포교활동 강화, 재정 보강 및 후원회 조직 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불련의 내실화' 불사의 청사진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 실행은 우리 단체의 존재 이유!**  
공불련이 올해 내놓은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실행활동 강화. 그간 '현상유지'만 하고 있던 공불련 실행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가족에 대한 수계 및 법령 받기. 실행에 있어 일터와 집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연 1회 시행하던 성지순례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등 공불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회원 개개인의 신심을 높일 계획이다.

수행정진 활성화팀 신요를 팀장은 "직장 실행단체라는 점 때문에 정기 법회 정도만으로 만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미지근한 실행에서 탈피, 공무원 불자들의 실행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조직력, 이제 '제대로' 챙긴다**  
"지금까지 내가 공불련에 소속돼 있는지, 체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공불련의 한 식구란 자부심이 있어야 직장 내에서도 '신(信)바람'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공불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공불련 회원 최모씨)

한 단체에서의 '조직력'은 생명과도 같다. 실행여건이 조성됐다면 이번에는 '조직 정비'가 급선무다. '최대 직장직능 실행단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회원들 개개인의 결속

## '참여하는 공불련, 하나되는 공불련' 로드맵 제시

### 성지순례 늘리고 가족과 함께 수계 1기관 1불자회 운동 등 포교 본격화

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공불련의 과제인 셈이다.

공불련이 가입기관 불자회와 미가입 기관 현황과약부터 실시해 조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조직 정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적극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도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 없이 조직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불련에서 새로 개편할 홈페이지(www.gongbul.or.kr)에는 '고충처리방' '우수회원 칭찬 코너', '공불련 119 구조대' 등의 공간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불자들의 고민, 실행 나눔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좋은 불법 널리 알려야**  
이번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의 또 다른 특징은 활동의 시선을 밖으로 돌린 점. 실행을 기본으로 한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불련이 '1기관 1불자회 갖기 운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 이상 실행단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단위기관 불자회 창립비율은 75% 정도. 전국 400여 기관 중 약 300곳이 불자회 갖기를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불련이 불자회 미창립 기관에 불교도인 결성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공불련의 '존재이유'로 직결되는 것이다.

또 공불련은 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 내 법당 건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포교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점이 법당이기 때문이다. 법당 건립 계획은 우선 대전 청사부터 시작해

서울과 과천으로 서서히 실행될 예정이다.

**# 후원회 꾸려 재정문제 해결**  
살림살이의 규모와 재정 투명도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불련의 재정은 몇몇 단체의 분담금과 집행부 인사들의 개인 자금 등으로 꾸려졌던 '주먹구구' 식의 방식을 탈피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공개와 분담금 납부 독려를 전개할 예정이다.

공불련은 이를 위해 회원들의 자율적인 회비 납부와 각 단위기관 불자회의 분담금 자율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공불련 창립취지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회장 또는 사무총장 명의의 협조서 발송이 분기별 1회씩 시행된다.

또 홈페이지에 단위기관별 분담금 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내보이는 한편, 단위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의무감도 함께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홍부 감사원 감사의 주도로 '(가칭)공공기관후원회' 창립도 준비 중에 있어 정·재계 인사, 각 종단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후원회가 결성되면 공불련에 재정지원도 가능해, 현재 안고 있는 재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불련 활성화 추진기획단 천홍욱 단장은 "지금까지 단체를 키워왔다면 이제부터 확실한 기반을 다져 구체적인 사업법위를 확정, 실행문화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가족봉사단 활동 시작 성복승무사사무소 법우회

수도권 지하철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공사 성복승무사사무소 법우회 회원들이 새해부터 웅골찬 봉사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민의 출발은 같은 일터에 전제 직원들과 '함께' 할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었다.

그러다 정찬연 교화부장이 무릎을 '탁' 쳤다. 지난해 11월, 법우회가 따뜻한 마음을 나

누고자 결성했던 가족봉사단에 본격적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본교 육까지 마쳤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첫 활동은 1월 3일, 가족봉사단의 이름을 '버팀목'으로 새로 정한 것부터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발원에서 이름을 붙였다.

버팀목이 처음으로 나선 곳은 의정부 후원동에 있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 선재동자원. 첫날은 버팀목 회원들과 원장 지

산 스님의 만남으로 시작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스님에게 버팀목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한결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기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직업 특성상 평일에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활동하기로 하며 지산 스님과 손을 맞잡았다.

정찬연 법우회 교화부장은 "법우회 회원은 물론 성복승무사사무소 모든 식구들이 '나눔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가족봉사단 '버팀목' 회원들이 1월3일 지산 스님과 봉사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일터가 도량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불자들. 직장인으로서도 100점, 불자로서도 100점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일을 실행처럼, 실행을 일처럼 하는 불자라면 가능할 것이다. '일터를 실행도량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는 일터불심을 찾아 나선다.

## 구석구석 빛내며 마음 닦아요

서울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김정애씨

서울 은평구 대조공원 화장실은 늘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곳을 자주 찾는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그저 '요즘 공중화장실이야 다 깨끗하지'라며 쉬 넘겨버리지만 이곳 화장실의 깨끗함은 남다르다.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김정애(48·법제심·사진씨가 든듯한 이곳 터줏대감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김정애씨는 마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대조공원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다. 구청은 물론 불심회원들 사이에서도 '세심(洗心보살)'로 통한다.

"아직 환경미화원 하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죠. 가끔씩 너무 힘들 때 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많았는데 '불자'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주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는 김정애에게 모진 말을 던질 때 가장 속상했다는 김정애.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글귀는 김정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내게 했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성냄도 섭섭함도 집착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일상엔 녹록지 않아 부딪치게 될 일은 생기기 마련. 노숙자, 가을 청소년들이 김정애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다.

"처음엔 막 싸웠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생기기더라고요.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지는 않을까 다시 생각해볼게 하더군요."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숙자 등과 말싸움을 하는 횡수가 줄어들었다. 마음을 고쳐먹으니 노숙자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내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이런 김씨지만 처음부터 불자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다 17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부처님 말씀이 지친 김씨의 삶을 지켜줬다.

실행활동은 8년 전, 은평구청 불심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심천사 주지 성운 스님이 평소 강조하는 '무주상보시'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자 소책자, 동지청소년의 집 등 5곳의 복지시설에 꾸준히 후원금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는 것이야말로 불법을 잘 따르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겨울을 닦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겨울 닦다가 '마음 닦을 것이 뭐 있나. 열심히 주어진 일 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 일이야말로 내 업장을 녹이는 길이구나 싶어요."

김강진 기자

##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뢰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성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 연구개발자: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검사: 시험번호 제 G02128호
- 상표등록번호: 40-2001-0031242
- 구입문의: 성모암 (063-544-0416) 법연 스님 (010-9282-0733)
- 특별판매가격: 125,000원(100ml×60포)

○본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오시는 길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계 IC에서 5분거리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	주	지	계	전					

박	물	관	장,	총	무	국	장	경	선
재	무	국	장	원	범	중	성	지	선
교	무	국	장	성	산	관	지	문	수
사	회	국	장	정	산	관	무	지	문
기	획	국	장	정	산	관	무	지	문
포	교	국	장	무	지	문	수		
호	법	국	장	지	문	수			
연	수	국	장	해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 www.beomeosa.co.kr